729-A06면 2009.4.27 11:5 AM 페이지 1(1,1)

행정·재정부원장 지홍·수열 스님

태고종 총무원 부장급도 인사

태고종 총무원 행정 · 재정부원장 및 부장 인사가 전격 발표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행정부원장에 지홍 스님, 재정부원장에 수열 스님을 선출하고 4월 2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총무 · 교무 · 재무 · 문화부장에 능해 · 법담 · 지상 · 상진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부원장 선출은 4월 8일 진행된 종무원장회의에서 두 스님이 추천된 후 이를 종회의원들이 서면 동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4월 17일까지 전체종회의원 53명 중 42명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 제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임 행정부원장 지홍 스님은 제8 · 9 · 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무부장, 기획실장, (사)한중일 교육문화교류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재정부원장에 선출된 수열 스님은 제8 · 9대 중앙종회의원, 제주교구 종무원장, 한라불교신문 발행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재정부원장 수열 스님을 제외한 모든 스님이 보우승가회 회원으로 구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운산 스님이 임시중앙종회와 종무원장회의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문제 등 대외적인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일을 새롭게 선출될 부원장 및 집행부에게 맡기겠다"고 언급한 때, 그동안 총무원장 운산 스님 비리의혹 등을 제기하고 이를 조사해 온 보우승가회 회원들이 종단 행정의 핵심자리에 인사 발령됐기 때문이다. 김진성 기자

'경허집' 월정사로 '귀환'

경허 선사 생애 한암 스님이 엮은 자료

경허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법제자 한암 스님(1876~1951)의 손으로 엮은 자료가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왔다. 또 자료의 영인본이 출간(민족사 刊)돼 경허 선사와 한암 스님에 대한 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암 스님 나이 56세인 193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만든 자료는, 서지가 김민영 선생이 고서점에서 구입해 소장하던 것으로 한암 스님 탄신 134주기를 맞아 월정사에 무상 기증됐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22일 한암 스님 탄신 134주기 탄신 다례재에 있을 기증식에 앞선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암선사 육필본 <경허집>'의 월정사 기증과 영인본 간행 등을 발표했다.

정념 스님은 "한암 스님은 경허 선사의 법어와 기문(記文), 서간(書簡), 행장(行狀), 영찬(影讚) 등을 각각 분류해 직접 세필(細筆)로 썼다"며 "특히 한암 스님이 쓴 경허선사의 행장은 한문본으로는 유일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해지는 <경허집>은 1943년 중앙선원(선학원)에서 활자본으로 만공 스님의 청으로 만해 스님이 편집했다.

한암 스님 육필로 쓰여진 <경허집>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한암 스님의 <경허집>은 선학원 판보다 12년 앞섰다. 선학원 판에 한암 스님 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경허 화상의 법화(法化)를 배움은 옳으나 (무애행으로 유명했던 경허) 화상의 행화(行化)를 배우면 안된다'는 문구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하지만 한암 스님은 "법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무애행)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적어 경허의 진면목을 바로 볼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표는 "한암 스님은 역사 서술은 가감첨삭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했다. 스님의 육필본에 담긴 '선사경허화상행장'은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종하 스님 원로의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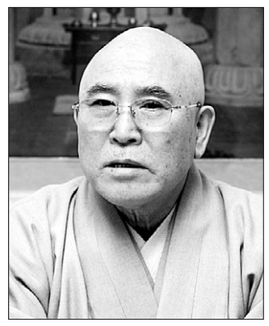
원로회의 '군승 독신 예외조항' 개정안 인준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종하 스님(서울 관음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3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종하 스님을 선출했다.

조계종 새 원로의원 종하 스님은 1938년 출생. 해인사에서 1958년 출가했다. 1959년과 1968년 고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 봉암사 범어사 선원 등에서 6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4~12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9 · 10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관음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지혜 · 밀운 스님 등 23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은 원로의원 선출건 외에도 종헌 개정안 인준건 등을 논의했다.


종하 스님.

스님들은 '군승의 독신 예외조항(종헌 제9조 2항) 삭제'에 대한 종헌 개정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청취한 후 투표에 부쳐 찬성 19표(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종헌 개정안을 인준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덕문 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의 조계종 정체성에 대한 의지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군승 수급문제 해결과 현역 기혼 군법사 예우와 관련해 종법으로 보완할 것을 전제로 인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군승에 관한 종헌 개정안이 인준됨에 따라 조계종은 '독신 비구승 종단'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됐다. 현재 현역 군승 137명 중 미혼자는 95명으로 이들이 앞으로 결혼을 할 경우 승려 자격을 잃게 됐다.

다만 현재 기혼 군법사들에 대한 예우 등은 종법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다. 또 현역 군인인 군종장교의 자격박탈은 조계종 규정이 아닌 국방부 인사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원로회의 의장 선출건은 現 의장 종산 스님의 임기가 2012년 12월 10일까지라는 법적 자문 결과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합법'

광주지검 순천지청 무혐의 처분

검찰이 관람객들의 민원이 제기된 지리산 천은사 일대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합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월 20일 "'천은사 측이 사찰과 떨어진 861번 지방도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돼 수사한 결과 사찰 측이 고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전남도가 2008년 12월 861번 지방도 좌우 측 1100만㎡를 문화재로 지정했다"며 "천은사 측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을 거치는 사람 중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천은사 측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은사 측은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를 연결하는 861번 지방도에서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람료(성인 1600원)를 징수해왔다.

국립공원시민연대는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는 통행객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천은사 측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재차 삼차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8년 2월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대검이 2009년 1월 재수사를 명령한 것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반발했던 국립공원시민연대 등이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들일지, 법원에 제정신청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원효 스님 1323주기

원효종 추모재 봉행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향운)은 4월 20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원효보살 성상 앞에서 '원효 보살 열반 1323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원효종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 향운 스님, 원로원장 대은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헌화 △봉행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서 향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원효종 종도로서 원효성상의 화쟁사상을 마음에 새겨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나가자"며 "이를 신도들에게 널리 알려 원효종풍을 선양하자"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개관식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4월 2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종훈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권경상 종무실장, 종로구청 김충용 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글= 이상언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윤원호 · 임충빈 · 김태균 불자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 5월 2일 시상

제6회 불자대상에 선정된 중앙신도회 윤원호 부회장(왼쪽), 임충빈 육군참모총장(가운데), 한화이글스 김태균 선수.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지관)는 '불기 2553년 불자대상'에 중앙신도회 윤원호 부회장,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야구선수 김태균(한화이글스) 불자를 선정했다고 4월 23일 발표했다

선정위원회는 "중앙신도회 부회장인 윤원호 불자는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10 · 27법난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및 제정 등 불교계 권익에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또 "임충빈 불자는 국군불교총신도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군불교 진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김태균 불자는 금번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세계만방에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불자선수로서 깊은 신행활동과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해왔다"고 선정취지를 밝혔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2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열린다. 조동섭 기자

"남북불자 한마음으로 통일 염원"

남북공동선언문 발표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공동발원문이 발표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4월 23일 남북이 합의한 남북공동발원문을 발표했다.

남측과 북측은 공동발원문에서 "원력과 통일실천행의 부족으로 남북간 갈등과 긴장이 조성돼 있다"며 "'나라 일이 잘되려면 민족이 모여 앉아 의논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오신날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회를 열고 통일의 서원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공동발원문은 2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와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발표된다. 조동섭 기자

봉 法 대한불교 법성종 축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교육원장 설허 만원
포교원장 상허 재령

총무원부원장 도원
중앙종회부의장 설봉 성인

포교부장 보현 조보현
재무부장 옥천 류옥순
총무부장 백봉 성관

원로원장 춘광 법주
중앙종회의장 일허 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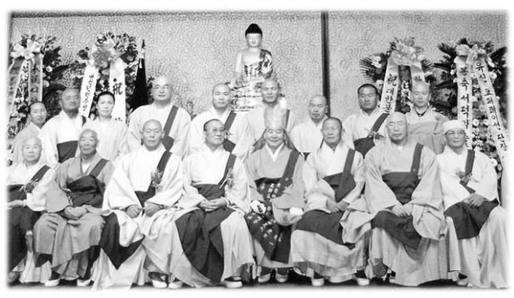
문화원장 락허 혜운
규정원장 조허 혜윤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교육부장 일초
문화부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